

대출 옥죄는 은행... 2금융권 내몰리는 건설사

건설업 대출 최근 10년새 6.2%p 하락... 제조업은 상승 유동성 위기 심각... 건산업 "건설금융시스템 개선 필요"

광주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 A씨는 걱정이 많다. 최근 분양을 앞둔 아파트에 집단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설경기가 좋았을 때는 1금융권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이다. A씨는 집단대출을 위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까지 아쉬운 소리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예전 잘 나갔던 때는 금융권에 '갑'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출을 위해 2금융권을 기웃거리야 하는 '을'이 됐다며 하소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업체들의 금융기관 차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권 집단대출의 어려움으로 비금융권 차입이 늘어나면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업)이 2008년 이후 예금기관의 산업대출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대출금 비중은 2008년 10.1%에서 올해 1분기 3.9%로 6.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대출금 비중은 29.5%에서 33.0%로 2.5%포인트 올랐고, 도소매업도 12.1%에서 12.4%로 0.3%포인트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분석 결과다.

건산업은 "지역 중소건설사는 물론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예금기관의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건설사업은 초기 자금 투입이 많은 반면 주택·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자금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져 현금 흐름의 미스매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대수 건설사들이 직접 금융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자금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보니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가 생존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건산업은 "금융위기 직후 주택 경기 하락으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이어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의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여신 규제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차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업체들이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건산업 지적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조치에 따라 집단대출에 대한 상황능력심사제도 도입, 분양보증 공금 일시 중단 등 정책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으로부

터 차입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건산업 분석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설업 대출금 비중은 4.6%에서 가계부채관리방안이 발표된 후 1분기에는 5.5%로 높아졌다.

김정주 건산업 연구위원은 "현 건설금융시스템은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금 흐름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점을 지닌다"면서 "이러한 한계점이 건설업 특유의 경기 민감성과 결합해 위기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와 부도 위험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건설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단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체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건설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94.48 (+2.69)
-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2)
- ↓ 코스닥 660.97 (-8.07)
- ↑ 환율 (USD) 1146.90원 (+2.80)



한전 '전력 미래' 길을 묻다

전력스쿨·전력경제포럼 개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남 나주에서 이병식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장 및 전력경제 분야 교수, 연세대학교 등 13개 대학 원생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2월 전력스쿨 및 제3차 전력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전력경제포럼은 전력산업의 주요 현안을 연구·토론하고 확산함으로써 국가의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2월 창립하였고 산·학·연 오픈이노버리터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 이후 분기별 정기 세미나와 함께 전력스쿨을 통하여 전력산업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 기반을 확대하여 전력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왔다. 전력스쿨은 미래 전력산업 리더와의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 공유 및 정책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련분야 석·박사 과정 40여명을 전력경제포럼 회원들로부터 추천 받아 명사 특강, 전력산업시설 견학, 전력경제이론 강의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력스쿨에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전남 진도의 HVDC 변환소와 한전 분사, 전력거래소 등 전력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전력산업계 명사 특강, 전력경제이론 강의, 제3차 전력경제포럼 합동 세미나를 통해 전력산업 분야에 다양한 시선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식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장은 "한전은 에너지 분야 대표 공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脫원전·신재생 확산 정책에 따른 역할과 신사업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 "조선업 종사자 응원합니다" 영암 현대삼호중 노조와 주류·음료 지원 협약

보해양조가 수주물량 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조선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해양조는 지난 29일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사무실에서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와 지역제품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해는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보해는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원들의 사내 워크숍 및 동호회 활동 등 행사시 인쇄주 등 주류·음료 제품을 지원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황보욱 보해양조 노조 위원장과 유영창 전국곡물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을 비롯해 이홍훈 보해양조 이사, 김민수 목포지점장 등 20



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인쇄주와 순회 막걸리 등 지역기업 보해가 만든 주류제품을 적극 애용하기로 했

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보해양조와 상호 협력하면서 보해양조 제품 판촉 활동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현대삼호중공업

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지역제품 소비에 동참해준다면 지역기업과 지역경기가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대유위니아' 광주서 제 2도약 나선다

본사·생산라인 이전 160억원 투자... 오늘 기념식

김치냉장고 '딤체' 이름을 알린 국내 중견 가전업체 대유위니아가 광주로 본사와 생산라인을 옮겨 제2의 도약에 나섰다. 대유위니아는 4일 광주서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대유위니아 광주인창공장 이전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유위니아는 아산공장의 광주 이전과 관련 광주가 박영우 회장의 출생지이자 그룹의 본거지이기도 하지만 공장이전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아산공장은 자동차 부품업체로 구성된 지역으로 가전 협력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며 "광주공장은 삼성과 LG 등 가전 협력사 다수가 포진해 있고 제품의 유통 비용 등 물류비 절감과 품질 향상 등 원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주가 정부의 정보 기술(IT) 가전 육성 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공장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대유위니아 대형가전 생산의 중심지가 될 광주인창공장은 대지 3만3057㎡, 연면적 2만3239㎡로 대규모를 자랑한다. 김치냉장고 '딤체'와 프리미엄급 냉장고 '프라우드' 등 대형 가전을 연간 최대 3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2년 전 에어컨과 밥솥 등 소형가전 라인을 광주 소훈공단으로 이전한 데 이어 대형 생산라인까지 구축했다. 대유위니아는 광주 생산라인 신설에 159억7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 가운데 16.34%

를 차지한다. 지역 경제계는 대유위니아의 광주공장 이전으로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올해 2018년형 김치냉장고 신제품과 공기청정 가습기인 에어워셔, 휴대용 에어컨인 '스포워셔'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생산공장 이전에 따라 아산공장 300여명의 임·직원도 이미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가족들의 이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치냉장고 생산 성수기인 9월부터 3개월 가량은 200여명의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계획이어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기업 경기 좋아졌다

6월 제조업 업황 BSI 전월비 13P↑... 7월 전망 2P↑

6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BSI)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는 85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상승했으며 7월 업황 전망 BSI는 78로 전월대비 2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가 광주·전남 소재 사업체 550곳을 대상으로 했다. BS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인 경우 긍정 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다. 6월 광주·전남지역의 제조업 매출 BSI는 91로 전월대비 3포인트 상승한 반면 7월 매출 전망 BSI는 90으로 1포

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채산성 BSI는 86으로 전월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7월 채산성 전망 BSI도 79로 12포인트 내려갔다.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내수 부진, 경쟁 심화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7월 업황 전망 BSI도 73으로 전월대비 5포인트 올랐다. 비제조업 매출 BSI는 74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으며 7월 매출 전망 BSI도 75로 3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채산성 BSI는 80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7월 채산성전망 BSI는 79로 1포인트 하락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성준 010-3342-6338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진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확인! www.ipalg.com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나 잔옌디나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